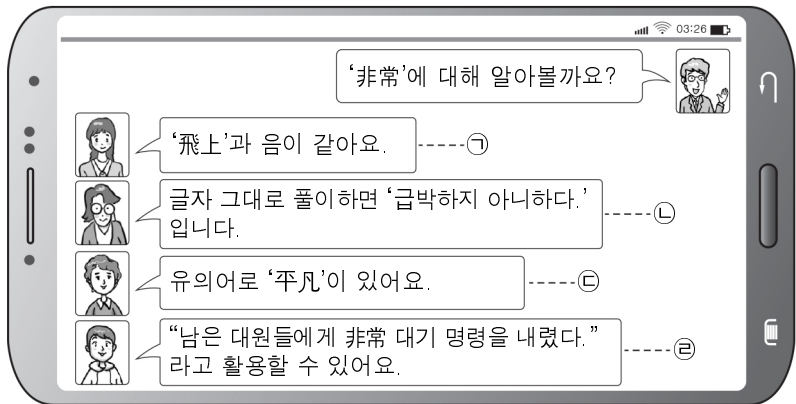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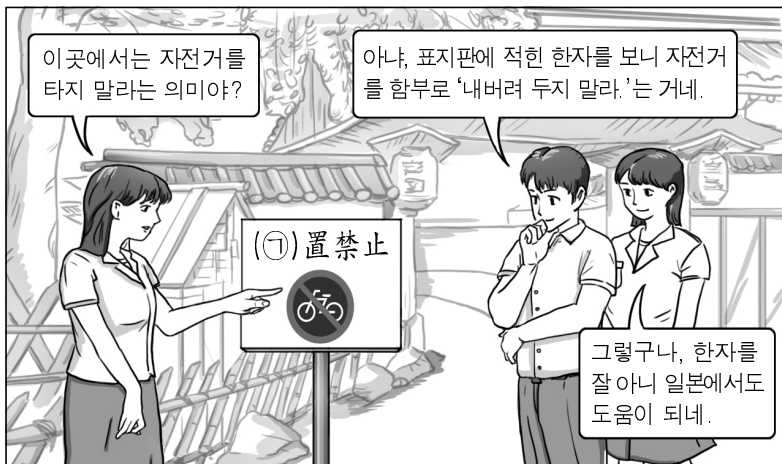


8. 대화의 내용 중 옳은 것을 고른 것은? [1점]



- ① ㉠, ㉡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② ㉠, ㉢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③ ㉡, ㉣
- ④ ㉡, ㉢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⑤ ㉢, ㉣

9. 그림과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 ㉠에 들어갈 것은?



- ① 處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② 受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③ 放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④ 指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⑤ 收

10. 글에서 ㉠의 행동과 가장 관계있는 것은? [1점]

정갑손이 함길도(咸吉道) 감사가 되어 왕의 부름을 받고 서울에 다녀와 보니, 함길도 지방 과거 시험의 합격자 명단에 그의 아들 오(烏)가 포함되어 있었다. ㉠정갑손은 시험을 주관하는 관리를 불러 꾸짖었다. “네가 감히 나에게 아첨을 하려 하느냐. 내 아들은 학업이 아직 정밀하지 못하거늘 어찌 합격자 명단에 있던 말인가?”하고 아들의 이름을 지워버렸다. - 『필원잡기』 -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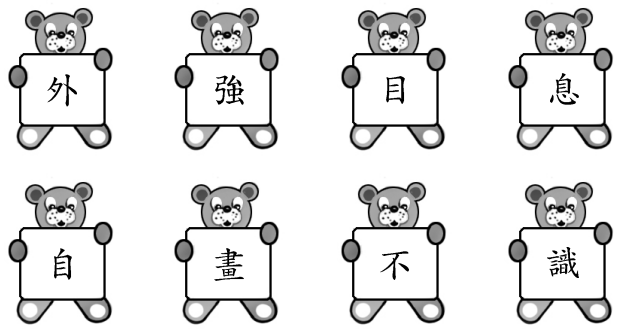
- ① 見危致命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② 走馬看山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③ 公平無私
- ④ 千載一遇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⑤ 束手無策

11. 광고문의 내용과 관계있는 것은? [1점]



- ① 節操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② 傾聽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③ 慎獨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④ 安全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⑤ 勤儉

12. 그림의 한자로 만들 수 있는 사자성어의 의미와 관계있는 것은?



- ①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가관이군.
- ② 이렇게 쉬운 것도 모르다니 아주 까막눈이네.
- ③ 노래 좀 잘한다고 저렇게 자기 자랑을 하는구나.
- ④ 최고의 실력자가 되었는데도 항상 꾸준히 노력하네.
- ⑤ 인상은 부드러운데 말하는 모습을 보니 속은 강단이 있네.

13. 그림과 글의 내용으로 보아 ㉠에 들어갈 것은? [1점]



- ① 長蛇陣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② 似而非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③ 如反掌
- ④ 碧昌牛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⑤ 破天荒

14. 글에 대한 이해로 옳은 것은?

雖有忙心, 線不繫針.  
 - 『이담속판』 -

- ① 말은 가려서 하는 것이 좋아.
- ② 남과 한 약속은 꼭 지켜야 하지.
- ③ 아무리 바빠도 중간 과정을 생략할 순 없어.
- ④ 포기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든 이룰 수 있지.
- ⑤ 다른 사람의 은혜는 잊지 말고 꼭 갚아야 해.

15. 글의 내용과 관계있는 성어는?

人之防患, 貴在防之未然.  
 - 『어우야담』 -

- ① 前代未聞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② 衆口難防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③ 無爲自然
- ④ 命在頃刻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⑤ 有備無患

16. 시의 내용과 가장 관계있는 것은?

먹을 게 없으면 콩잎도 맛이 달고  
입을 옷 없으니 칩베 옷도 좋다네.  
따스고 배부른 즐거움만 구하면  
얼지도 못한 채 해로움이 먼저 따르리.

- 정포, 「시아(示兒)」 -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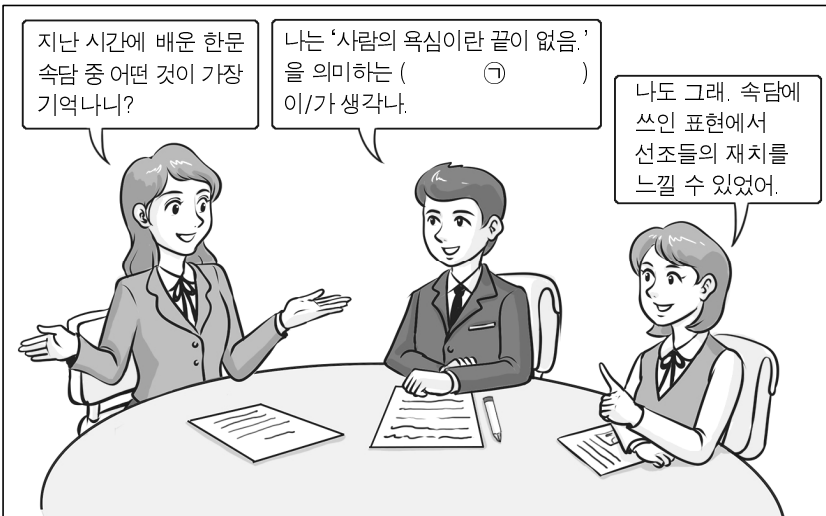
- ① 人不學, 不知道.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② 附耳之言, 勿聽焉.
- ③ 知足可樂, 務貪則憂. 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④ 莫見乎隱, 莫顯乎微.
- ⑤ 當正身心, 表裏如一.

17. 글의 내용으로 보아 ㉠과 ㉡에 공통으로 들어갈 것은?

○輕當矯之以(㉠), 急當矯之以緩.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- 『범허정집』 -  
○人固有一死, 或(㉡)於太山, 或輕於鴻毛.                - 『문선』 -

- ① 斷            ② 卑            ③ 成            ④ 重            ⑤ 難

18.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 ㉠에 알맞은 것은?



- ① 騎馬, 欲率奴.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② 積功之塔, 不墮.
- ③ 鳥久止, 必帶矢.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④ 陰地轉, 陽地變.
- ⑤ 兒在負, 三年搜.

19. ㉠에 들어갈 것을 <보기>의 카드로 완성할 때, 순서대로 바르게 배열한 것은?

水去不復回, ( ㉠ ).    - 『추구』 -

< 보 기 >

㉠	㉡	㉢	㉣
言	難	出	更收

- ① ㉠ - ㉡ - ㉢ - ㉣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② ㉠ - ㉣ - ㉡ - ㉣
- ③ ㉡ - ㉠ - ㉣ - ㉢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④ ㉡ - ㉣ - ㉠ - ㉢
- ⑤ ㉣ - ㉡ - ㉠ - ㉣

[20~21]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.

孟子對曰：“王好戰，請以戰喻。 <중략> 棄甲曳兵而走，或百步而後止，或五十步而後止，以五十步，笑百步，則何如？”曰：“不可，直不百步耳，是亦(㉠)也。”

\* 喻(유): 비유하다    \* 曳(예): 끌다  
- 『맹자』 -

20. 윗글의 내용으로 보아 ㉠에 들어갈 것은?

- ① 好            ② 笑            ③ 止            ④ 走            ⑤ 兵

21. 윗글의 내용과 관계있는 성어는?

- ① 小貪大失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② 大同小異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③ 一罰百戒
- ④ 百年河清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⑤ 積小成大

[22~23]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.

楚人有(㉠)涉江者，其劍自舟中墜於水，遽(㉡)契其舟，曰：“是吾劍之所(㉢)從墜。”舟止，從其所契者，入水求之，舟已行矣，而劍不行，求劍(㉣)若此，不亦惑乎？以此故法，(㉤)爲其國，與此同。

\* 楚(초): 나라 이름    \* 墜(추): 떨어지다    \* 遽(거): 갑자기  
- 『여씨춘추』 -

22. ㉠~㉤의 풀이로 옳은 것은?

- ① ㉠: 헤엄치다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② ㉡: 맺다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③ ㉢: 모시다
- ④ ㉣: 그대    ⑤ ㉤: 다스리다

23. 윗글의 흐름으로 보아 <보기>의 문장이 들어갈 곳은?

< 보 기 >

時已徙矣，而法不徙，以此爲治，豈不難哉？

\* 徙(사): 옮기다

- ① (가)            ② (나)            ③ (다)            ④ (라)            ⑤ (마)

[24~25]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.

洪相國之夫人，家甚貧，疏食菜羹，每多空乏。一日，遣婢買肉而來，見㉠肉色，似有毒。問婢曰：“所買之肉，有幾許塊耶？”乃賣首飾得錢，使婢盡買其肉，而埋于墻下，恐他人之買食生病也。

\*羹(갱): 국 \*乏(핍): 모자라다  
- 『해동속소학』 -

24. ㉠과 짜임이 같은 것은?  
 ① 植木    ② 黃土    ③ 希望    ④ 花開    ⑤ 朋友

25. 윗글의 내용으로 알 수 있는 것만을 <보기>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?

〈보기〉

ㄱ. 여중이 사 온 고기에는 독이 있는 것 같았다.  
 ㄴ. 대부인은 여중에게 살 수 있는 고기가 얼마만큼 있는지 물었다.  
 ㄷ. 대부인은 머리카락을 팔아 모든 고기를 사 오도록 했다.  
 ㄹ. 여중은 고기를 나중에 먹으려고 담장 밑에 묻어 두었다.

- ① ㄱ, ㄴ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② ㄱ, ㄷ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③ ㄴ, ㄹ  
 ④ ㄱ, ㄷ, ㄹ            ⑤ ㄴ, ㄷ, ㄹ

[26~27]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.

俗稱秋夕，又曰嘉排。<중략> 新羅儒理尼斯今，使王女二人，分  
 ㉠率六部女子，自七月㉡望，集大部之㉢庭，續麻，乙夜而㉣罷。至  
 八月望，㉤考其功之多少，負者，置酒食，以㉥謝勝者。於是，歌舞  
 百戲，皆作，謂之嘉排。

\*嘉(가): 아름답다 \*尼斯今(이사금): 신라 시대 임금의 칭호  
- 『경도잡지』 -

26. ㉠~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 
 ① ㉠은 '引率'의 '率'과 뜻이 같다.  
 ② ㉡은 '보름'을 뜻한다.  
 ③ ㉢은 '情'와/과 음이 같다.  
 ④ ㉣은 '完了'와 의미가 통한다.  
 ⑤ ㉤의 대상은 '尼斯今'이다.

27. ㉤에서 마지막으로 풀이되는 것은?  
 ① 考    ② 其    ③ 功    ④ 之    ⑤ 少

[28~30] 다음 시를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.

(가) 寺在白雲㉠中， 白雲僧不㉡掃。  
 客來門始㉢開， 萬壑松花老。

\*壑(학): 골짜기  
- 이달, 「산사(山寺)」 -

(나) 秋草前㉣朝寺， 殘碑學士文。  
 千年有流水， ㉤落日見歸雲。

- 백광훈, 「홍경사(弘慶寺)」 -

28. ㉠~㉤의 풀이로 옳지 않은 것은?  
 ① ㉠: 가운데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② ㉡: 쓸다  
 ③ ㉢: 열리다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④ ㉣: 아침  
 ⑤ ㉤: 지다

29. 위 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<보기>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?

〈보기〉

ㄱ. (가)의 첫째 구와 둘째 구는 대우(對偶)를 이루고 있다.  
 ㄴ. (가)의 넷째 구는 '萬壑/松花老'로 띄어 읽는다.  
 ㄷ. (나)의 형식은 오언절구이다.  
 ㄹ. (나)의 운자(韻字)는 '文', '水'이다.

- ① ㄱ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② ㄱ, ㄷ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③ ㄴ, ㄷ  
 ④ ㄴ, ㄹ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⑤ ㄱ, ㄴ, ㄹ

30. 위 시에 대한 이해로 옳은 것은?  
 ① (가)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역동적이라고 할 수 있지.  
 ② (가)의 시적 화자는 늙어버린 자신의 모습을 한탄하는군.  
 ③ (나)는 꿈에서 본 고향의 풍경을 자세히 묘사하고 있어.  
 ④ (나)의 시적 화자는 속세를 벗어나 한적한 삶을 살길 원하네.  
 ⑤ (나)에는 자연의 영원함과 인생의 무상함이 대비되어 있구나.

※ 확인 사항  
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(표기)했는지 확인하십시오.